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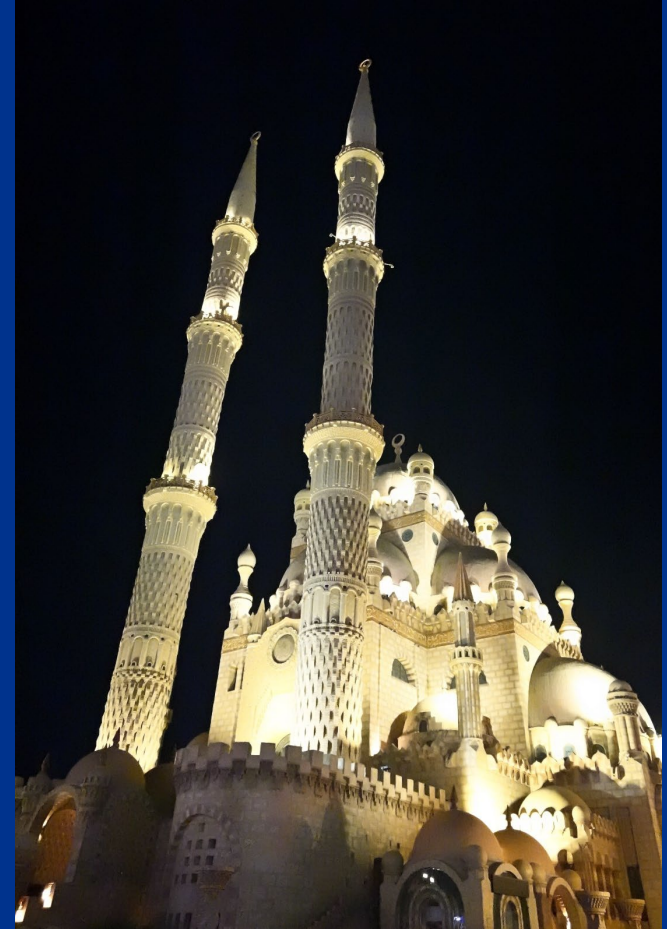
# Business Focus

## COP27 Review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November 2022

—  
삼성KPMG 경제연구원



# Contacts

##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 02-2112-7095  
E [nkim15@kr.kpmg.com](mailto: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T 02-2112-3918  
E [yeom@kr.kpmg.com](mailto:yeom@kr.kpmg.com)

정미주  
선임연구원  
T 02-2112-4802  
E [mijujung@kr.kpmg.com](mailto:mijujung@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COP26 경과	3
COP27 개요	4
COP27 비전	5
COP27 주요 논의사항	6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채택	9
KPMG의 View	10

# COP26 경과

지난해 개최된 COP26에서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재점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글래스고 기후합의가 이루어졌음

##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주요 내용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P26에서 최초로 석탄 사용에 대한 합의 도출</li> <li>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 및 화석연료 보조금(화석연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재정적 지원)도 단계적 폐지할 것을 합의</li> </ul>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2년 재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 '1.5°C'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당사국은 2022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up>1)</sup>를 상향 조정하여 다시 제출하기로 합의</li> </ul>
선진국 기후변화 적응기금 두 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기술이전 등 적극적 수행</li> <li>선진국은 기존 자원 조성 의무 확인 및 이행을 천명</li> </ul>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로 감축, 적응, 자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 포괄

## COP26 합의안 이행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EA<sup>1)</sup>와 OECD<sup>2)</sup> 공동 분석에 따르면, 한국 등 51개 국가에서 '21년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오히려 증가. '20년 대비 두 배 수준</li> <li>IEA와 OECD는 '22년 역시 에너지 대란 등으로 인해 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년 11월부터 NDC 제출 마감 시한이었던 '22년 9월까지 196개국 중 29개 국가 새로운 계획 제출 완료<sup>3)</sup></li> <li>마감일 후부터 '22년 11월 7일까지 NDC를 추가 제출한 국가는 6개국으로 총 35개 국가만 NDC 재제출 완료<sup>3)</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선진국들은 연간 최소 1,000억 달러 기후기금 조성 약속 → '19년 796억 달러, '20년 지원액 미공개, '21년 10월까지 880억~900억 달러 지원 추정</li> <li>'22년 6월 독일에서 열린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서 2025년 이후 새로운 자원 조성 목표를 위한 논의 진행</li> </ul>

Source: IEA, OECD, UN Climate Chang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국제에너지기구, Note 2): 경제협력개발기구, Note 3): UN Climate Change 페이지에 '22년 11월 8일 검색 기준

# COP27 개요

'22년 11월 6일~20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된 COP27은 파리협정과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대한 이행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여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을 최종 합의문으로 채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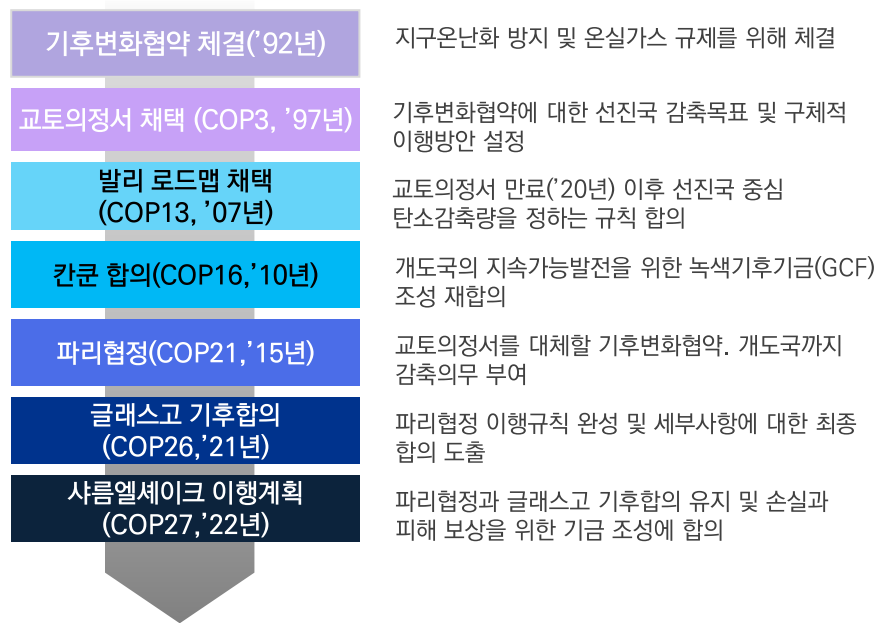
##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항목	내용
장소	-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
기간	- 2022년 11월 6일 ~ 11월 20일 (정상회의 : 11월 7일~11월 8일)
참가 규모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198개국) 정부 대표, 환경 자선 단체, 지역 사회 단체 등 3만여 명
주요 의제	- 각국의 배출량과 탄소 감축 계획 재검토 및 강화 - 기후위기 초래 관련,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배상책과 지원방안 논의 - 선진국의 매년 1,000억 달러 녹색기후기금(GCF) 조성 이행 - GST(Global Stocktake, 글로벌 이행점검 <sup>1)</sup> ) 세부 기준 협의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글로벌 이행점검이란 2023년부터 매 5년마다 전 지구적 감축, 적응, 지원 이행경과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를 의미

## 주요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COP27(Conference of the Parties 27th)은 코로나19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2020년을 제외하고 1995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2022년 27번째 당사국총회가 열림

# COP27 비전

당사국은 COP27이 ‘이행(Implementation)’의 총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축·적응·금융·협력을 비전으로 삼아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함

## COP27 4대 목표 및 내용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금융(Finance)	협력(Collaboration)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년까지 글로벌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계와 사회의 적응 능력을 넘어선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 추가 손실 방지하기 위해 시설 구축 및 재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진국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 적극적 협력 필요</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래스고 기후합의 진전도 평가</li> <li>2030년까지 2018년 메탄가스 배출량 대비 30% 감축하자는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 촉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여부 평가<sup>2)</sup>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li> <li>개발도상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원, 역량배양, 기술지원 방안 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진국의 매년 최소 1,000억 달러 규모 기후 금융 조성 이행 재확인<sup>3)</sup></li> <li>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신규 기금 조성에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 기후 위기 해결 조치 가속화 방안 논의</li> <li>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 방안 모색</li> </ul>

Source: UNFCCC 홈페이지,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뜻하며,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 생물다양성 상실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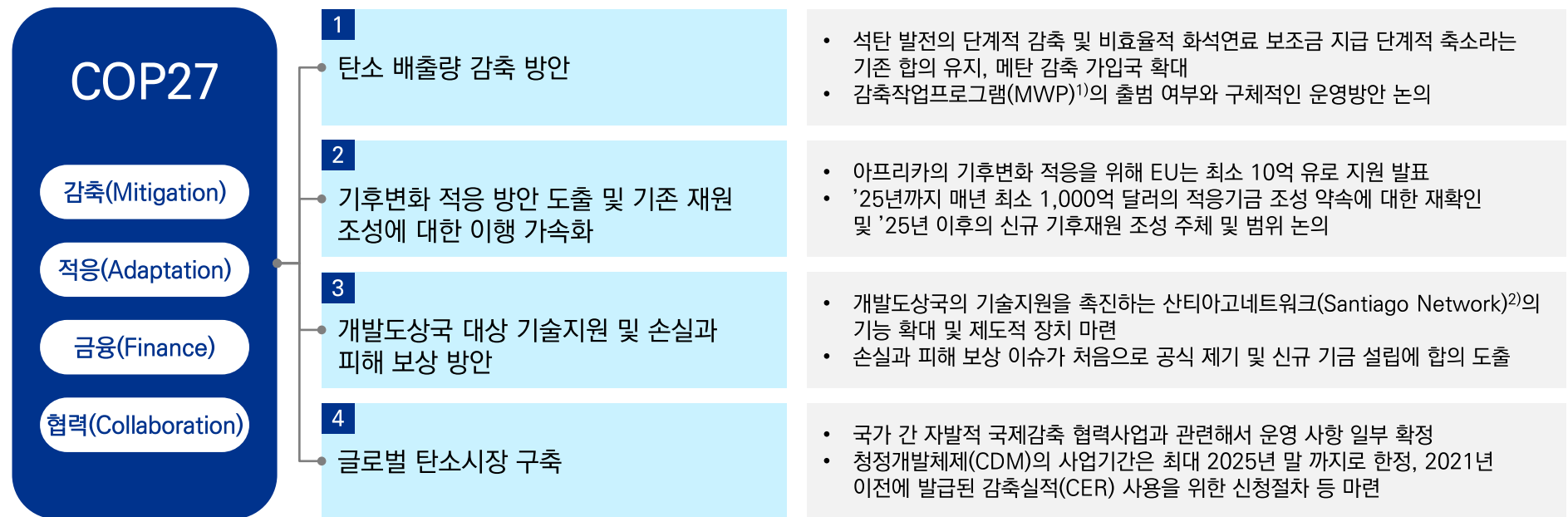
Note 2):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여부 평가 기준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향상,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등이 포함

Note 3): COP16에서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COP21에서 이를 2025년까지 연장

# COP27 주요 논의사항 (1/3)

COP27에서는 1)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 2)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및 기존 자원(Finance) 조성에 대한 이행 방안, 3)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손실과 피해 보상 방안, 그리고 4)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COP27 주요 안건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감축작업프로그램(Mitigation Work Program, MWP)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의되어 새롭게 신설 예정이나 개도국은 감축 목표 이행에 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단순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행동지향 절차'로 규정하는 등 시각차 존재

Note 2): 산티아고네트워크(Santiago Network)는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 최소화, 해결하기 위해 조직, 기관, 네트워크와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COP25에서 설립

# COP27 주요 논의사항 (2/3)

당사국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축소 안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으나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단계적 축소 안은 결렬. 한편, 기후변화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에 합의했으며 선진국은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이행을 재확인함

## 1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 유지, 화석연료 전반 확대 실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 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 유지(COP26 합의 사항)</li> </ul>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탄 발전에 대한 문제 의식 공유</li> <li>석탄 외 석유, 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연료까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논의</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 증가</li> </ul>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에 대한 전원 동의는 실패</li> </ul>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2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 설립 및 연간 \$1,000억 지원 재확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에 합의</li> <li>선진국은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이행</li> </ul>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에는 적응 진전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지표 등 포함</li> <li>2025년 이후 새로운 자원 조성목표는 2022년부터 개시된 기술전문가대화체<sup>1)</sup>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 기반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도 평가 가능</li> <li>기 합의된 연간 1,000억 달러 지원에 대한 추진력 제고</li> </ul>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P16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 달러 조성에 합의, 이를 2025년까지 연장했으나 2020년까지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li> </ul>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COP26에서 당사국들은 2022~2024년 동안 매년 네 차례의 기술전문가대화체 및 한 차례의 고위급 대화체를 통해 새로운 자원목표를 논의하기로 합의



# COP27 주요 논의사항 (3/3)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이슈가 처음으로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금 설립에 합의함. 아울러, 지속가능개발체제(SDM)<sup>1)</sup>로의 전환 등 국제 탄소시장 형성을 위한 기술지침도 마련함

## 3 손실과 피해 관련 신규 기금 설립에 합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손실과 피해 이슈가 처음으로 공식 의제 채택되고, 신규 기금 설립에 합의</li> </ul>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국은 해수면 상승·태풍·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비용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아닌 '보상' 요구</li> <li>신규 기금 조성기구 설립에 합의</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국 입장에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실효성 확대<sup>2)</sup></li> </ul>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금 조성 주체, 기금 규모, 보상 범위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미정</li> <li>단순히 별도 기금을 설립하는 것보다 선진국의 분명한 의지와 현실가능한 일정 수립이 중요</li> </ul>

## 4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기술지침 마련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 일부가 채택</li> </ul>
논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기술전문가 검토지침 등 일부 확정</li> <li>청정개발체제(CDM)의 사업기간은 최대 2025년 말까지로 한정, 2021년 이전에 발급된 감축실적(CER) 사용을 위한 신청절차 등 마련</li> </ul>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 탄소시장 구축의 원활한 이행 및 활성화</li> </ul>
한계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개발체제의 지속가능개발체제(SDM) 전환 지침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li> </ul>

Source: UNFCCC 홈페이지,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교토의정서 아래 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 Mechanism, CDM)가 파리협정에서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 Mechanism, SDM)로 대체됨

Note 2): 현존하는 기후위기 대응 자금은 '20년 기준 70%가 대출 형태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됨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채택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주요 내용

COP27 당초 폐막일(11월 18일)을 이틀 넘긴 11월 20일 오전 10시경(이집트 현지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

-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설립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자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예정
-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설립하여 전 지구적 적응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발
- 선진국 기후변화 적응기금 2025년까지 약속 재확인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약속, 이후 새로운 자원 조성목표는 기술전문가대화체를 통해 논의
- 파리협정 6조 국제 탄소시장 기술지침 채택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SDM으로의 전환 지침 등 기술지침 일부 채택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에 대한 코멘트



사메 수크리 COP27 의장(이집트 외무장관)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결한 끝에 합의문을 만들었고, 고뇌와 절망에 귀를 기울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이번 합의문은 깨져버린 합의를 복구하기 위해 그간 절실히 필요했던 정치적 신호. 그러나 우리의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



마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 대표

"이번 합의는 거대하게 벌어진 상처 위에 붙인 조그마한 반창고와도 같다."



모하메드 아도우 '파워시프트아프리카' 설립자

"처음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KPMG의 View (1/2)

COP27 최종 합의 결과와 주요 국가·기관의 Key Message를 종합할 때, 국내 기업은 ESG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청정개발체제에서 지속가능개발체제로의 전환, EU의 탄소국경세 시행에 주목하여 ESG 경영 방향성 검토 필요

## COP27 주요 합의 결과

- 석탄 발전 단계적 감축안 유지
- 감축 작업프로그램을 '23년부터 착수, '26년까지 운영에 합의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합의
- 기 합의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연간 \$1,000억 지원 재확인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관련 신규 기금 설립
- 국제 탄소시장 기술지침 채택

## 주요 국가·기관 Key Message

- 미국, 연방 조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요구
  - 정부기관 조달업체 배출량 데이터 수집
- EU, '23년 재생에너지 보급 2배 ↑
  - EU는 '23년 100GW 용량 목표
  - 태양광, 풍력, 녹색수소 등 투자 예정
- WTO, 환경 무역협정 논의 재개
  - 환경 관련 제품·서비스 대상 관세 및 무역장벽 폐기 관련 협상 재개 예정
- CDP<sup>1)</sup>, ISSB<sup>2)</sup> 표준을 도입
  - IFRS S2(기후공시 기준서)를 통합, ISSB 표준을 플랫폼에 도입 예정

## 국내 기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

- ESG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가속
  -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공개 요구 강화 예정, 국내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CDM(청정개발체제) → SDM(지속가능개발체제)
  - SDM에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까지 확대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도 활성화 예상
- 탄소국경세(CBAM)의 시행에 대응
  - '22년 6월 CBAM 수정안 최종 승인하면서 기존 5개 분야<sup>3)</sup>뿐 아니라 신규 업종<sup>4)</sup> 포함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로 자산 130조 달러 이상의 680개 금융기관을 대표하여 매년 환경정보공개를 실시, 13,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에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Note 2):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Note 3):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 Note 4):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

# KPMG의 View (2/2)

국내 기업은 '25년~'30년 내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하며, 탄소 감축 신규 사업은 지속가능개발체제에 기반하여 개발해야 함. 또한 유럽 내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 도입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필수적

## 핵심 이슈별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b>1</b> ESG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24년부터 250명 이상 보유 및 매출액 4,000만 유로 이상 기업은 상장여부 관계없이 ESG 정보 공개 의무<sup>1)</sup></li> <li>미국: 기후 리스크 공시법이 '21년 통과, '22년 말부터 모든 상장사에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도 '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 '30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li> </ul>
<b>2</b> 청정개발체제(CDM)의 지속가능개발체제(SDM)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개발체제(CDM)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감축 사업 수행 시 발생한 탄소 감축분을 국제 탄소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크레딧으로 발급</li> <li>지속가능개발체제(SDM)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을 없애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탄소 감축 사업 수행해도 해당 크레딧 발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기업의 해외 CDM 사업은 124개, 연간 예상 감축량은 2,010만 톤인 가운데 '23.12.31일까지 SDM으로 전환 필수, 신규 사업은 SDM 규정에 따라야 함</li> </ul>
<b>3</b> 탄소국경세(CBAM)의 시행에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ETS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li> <li>기존 대상 산업이었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5개 산업 외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등 3개 산업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로 상세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li> </ul>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적용 대상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외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 존재



# Business Contacts

## ESG 비즈니스 그룹

### Consulting Service

이동석 부대표 T 02-2112-7954 E dongseoklee@kr.kpmg.com	김정남 상무 T 02-2112-7641 E junnamkim@kr.kpmg.com	문상원 상무 T 02-2112-6513 E sangwonmoon@kr.kpmg.com	박경수 상무 T 02-2112-6710 E kyungsoopark@kr.kpmg.com
---	--	--	---

### Deal Advisory

김진만 부대표 T 02-2112-0786 E jinmankim@kr.kpmg.com	김진원 부대표 T 02-2112-0795 E jinwonkim@kr.kpmg.com	이진연 상무 T 02-2112-7435 E jinyeunlee@kr.kpmg.com	신수련 이사 T 02-2112-7528 E ssheen@kr.kpmg.com
---	---	---	---

### Audit

김진귀 전무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김시우 상무 T 02-2112-0893 E siwookim@kr.kpmg.com	정재욱 상무 T 02-2112-7909 E jjoung@kr.kpmg.com	황정환 상무 T 02-2112-0462 E jeonghwanhwang@kr.kpmg.com
--	---	---	---

[home.kpmg/kr](https://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